

큰스님 수행한담

“남탓 말고 ‘내가 먼저’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악행품(惡行品) ③

加惡潤惡人 기악무망인
清白猶不污 청백유불오
愚殃反自及 우양반자급
如影隨形如影隨形

남을 속이고 해치더라도
깨끗한 이 오히려 더럽히지 못하고
그 재앙은 도리어 제게 미친다
맞바람에 먼지를 뒤집어 쓰듯이

過失起非惡 과실범비악
能追悔為善 능추회위선
是明眼世間 시명조세간
如日無雲如日無雲

잘못해서 악행을 범했다하면
반드시 뉘우쳐 바쁨으로 돌아가라
이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이니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지 못하고 같

夫士所以行 부사소이행
然後身自現 연후신지현

“모든 생명 매질의 아픔 두려워 하니
자기를 용서하듯 남을 용서하라”

為善則得善 위선즉득선
為惡則得惡 위악즉득악

무엇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뒤에 가서 제가 스스로 보게되나니
선행이면 곧 선과를 받고
악행이면 곧 악과를 만나리라

有識無胎 유식타포태
惡者入地獄 악자입지옥
行善上天 行善上天
無為得福 無為得福

식을 따르면 동물의 태집에 들고
악을 행한 이는 지옥에 들며
선을 행한 이는 천상에 태어나고
함이 없음을 이르면 열반에 든다

非空非海中 비공비해중
非離山石間 비리산석간
莫能於此處 막능어차처
避免諸惡殃 피면속악양

허공도 아니요 바닷 속도 아니다
깊은 산도 아니요 바위들도 아니다
어느 곳이라도 숨을 만한 곳은 없다
내가 지은 악업의 재앙은 피할 수
없다

衆生有苦惱 중생유고뇌
不得免老死 부득면노사
唯有仁智者 유유인지자
不念人非惡 불념인비악

중생에게는 갖은 번뇌가 있어
늙음과 죽음을 면하지 못하니
그러므로 오직 어질고 지혜로운이는
남의 잘못과 허물을 탓하지 않는다

도장품(刀杖品) ①

一切諸羅刹 일체개구사
莫不畏杖罰 막불외장봉
惡已可爲善 악이가능선
勿殺勿打杖 물살물쟁장

모든 생명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매질의 아픔을 무서워 하지 않는다
자기를 용서하듯 남을 용서해
죽이지 말고 때리지 말라

能常安群生 능상안군생
不加諸楚毒 불가제초독
現世不逢害 현세불봉해

“모든 생명 매질의 아픔 두려워 하니
자기를 용서하듯 남을 용서하라”

後世長安穩 후세장안온

항상 중생들을 편안케 하여
어떤 고통도 가하지 않는다면
현재에서도 해침을 당하지 않고
후세에서도 길이 안온하리라

不當露言 부당추언
言當畏報 언당외보
惡往禍來 악왕화래
刀杖歸羅刹 도장귀로刹

부디 나쁜말 거친말 쓰지말고
말할때 반드시 과보를 두려워하라
악이 건너가면 화가 돌아오니
칼과 몽둥이가 네 몸을 치리라

出言以善 출언이선
如刀如劍 여고종경
身無論議 신무론의
度世則易 도세즉이

말할때는 고운 말 착한 말로
종·경쇠를 울리듯이 하라
그러면 저를 두고 세상의 시비가 없
고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쉬우리라
龍眼

청하스님 (조계종 전계대화상)

조계종 전계대화상 청하스님의 방 앞에는 코스모스가 담장을 따라 햇살을 받으며 한들한들 흔들리고 있다. 무르익은 가을 현대불교신문 창간 3주년을 맞아 방문한 기자에게 스님은 “현대는 미래로 발전, 불교는 세계로 법을, 신문은 국론통일 화합”이라고 쓴 축하화환을 정겹게 건네주시며 뜻을 새겨주신다. “신문은 모든 국민의 뜻을 하나로 화합하게 만들어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하는 겁니다.” (편집자 주)

“우리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책임있는 일꾼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일, 가정일, 절집일 까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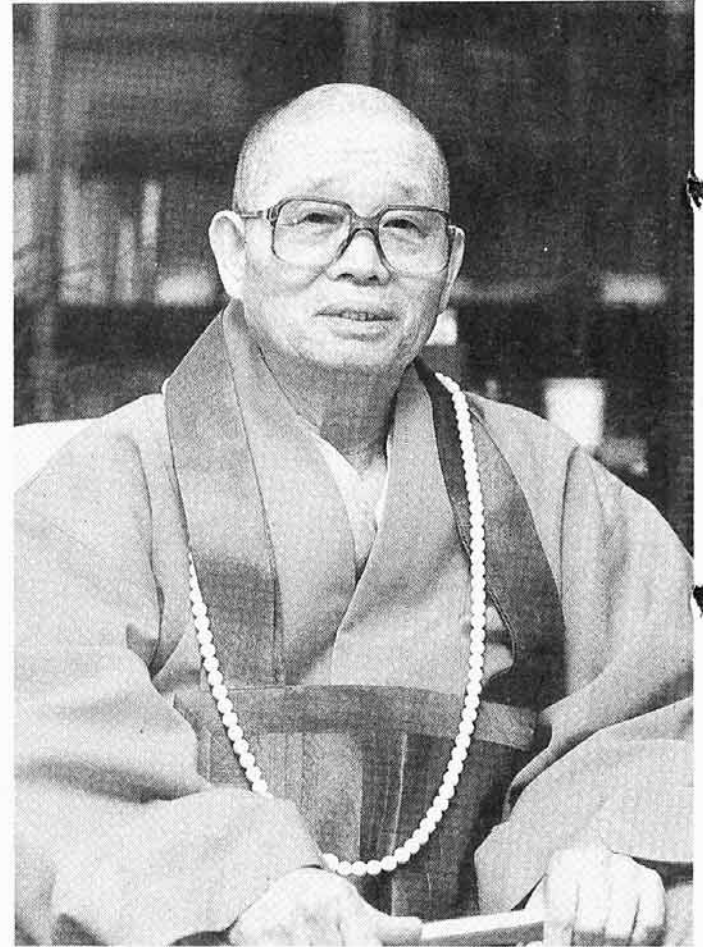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 후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풍도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번거롭기만 한일이지요. 옛말에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재상이 나와야 하고 집안이 가난하면 어진 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지러운 시절에는 지혜롭고 어진 정치인이 나와야 하는 것인만큼 우리 국민들이 모두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현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병폐중 하나가 책임있는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일도 그러하고 가정의 일도 그러하고 절집안의 일도 그러합니다. 자신이 한 일이나 행동에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저마다 잘한 것만 내세우고 잘못된 것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게지요. 나라의 살림을 맡아 나갈 책임자를 뽑는 것이 대통령선거이니 만큼 정말 책임감있고 어진 인물을 가려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개인의 욕심과 이기를 넘어 보다 넓은 이익을 위한 즉 요익중생하는 인물이어야 되겠지요.

요즘세대를 가만히 보면 옛날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뭔가 모르게 각박해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질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지만 사람간의 인정은 메마르고 생명은 경시되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남의 목숨을 헛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열만전에도 빛나리양 유괴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개인의 욕심,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남의 생명을 희생시킨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처럼 물질이 풍족해도 더욱 어지럽고 흉포해지는 것은 물질이 있으면 그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겨 그로부터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탐하게 되고 남보다 나의 욕심을 우선 채우려는 욕심이 정정란 마

음을 가로막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말씀을 지킴이 삼아 부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승가와 재가 구분할 것 없이 부처님같이 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 1927년 경북 월성 생
- 1946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 계사로 구족계 수계
- 조계종 중앙총회 2·3·5·6대 총회의원
- 1967~77년 통도사 주지
- 1986년~현 영축총림 통도사 부방장
- 1996~현 조계종 전계대화상



“일어나는 한생각마저 떨쳐버리면
‘나’ 라는 꼬투리는 절로 없어져요”

누구십니까. 보장된 모든 물질적 안락과 권력을 던지고 출가자의 길을 택해 지혜를 구축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우선 물질, 권력에 대한 욕심을 없애 착을 끊어 나가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명예욕을 버리고 권력에 대한 유혹을 떨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계(持戒)입니다.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동을 내가 책임지고 나가겠다는 것이 지계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계라고 하면 행동을 구속하고 자유를 속박하는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지만 오계를 지키는것 속에 나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길이 있습니다. 오계만 제대로 지키면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사라

지게 되어 있는 이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살생 안하면 타인도 나에게 해를 주지 않을 것이고 내가 거짓말 하지 않으면 상대도 나에게 거짓말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남의 것 탐하지 않으면 남도 나의 것 탐하지 않게됩니다. 무엇이든 남의 탓을 하지말고 내가 먼저 남을 이익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계는 좋은 것입니다. 내가 먼저 모범이 되고 남을 이익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계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며, 이 어지럽고 각박한 현실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요즘 출가자들은 대체로 과거보다 계

를 지키겠다는 철저한 원력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적당히 고쳐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편리한 생각하는 이기성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기 편해져서 그런지 공부하다가도 조금만 힘들면 어딘가가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정도 그러합니다. 한 가정을 이루어 서로가 힘든 점이 있다해도 내가 정이니 내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 이끌어 가겠다는 결심으로 행동해야 하는데 적당한 살다가 싫으면 광채치니 이혼과 싸움이 끊이질 않게 되는 것이지요.

돌이켜보면 세상은 물질명명을 받아들여 점점 편리해져 가는데 사람살이는 예전만 못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습니다. 14세에 절에 들어와 16세에 정식으로 계를 받았습다. 그때만 해도 자동차는 물론이고 고무신도 없어 짚신 신고 짐을 짊어지고 먼길을 걸어다녔습니다. 부산 연안간 버스도 하루에 2번밖에 없던 때였지요. 짚신을 삼아서 신고 모래도 하고 가을견디고 하고 짐도 쳐나르

시 · 공 · 사 · 의 · 불 · 교 · 책 · 들

숨어있는 참나를 찾아

백팔고개 넘어 부처되기

계한 지음/328쪽/값 6,500원

물음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불교 교리도 이제 좀더 솔직하고 쉬운 언어로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도록 알기 쉽게 쓰고자 한 것이 오히려 현문우담이 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를 알고자 하는 불자들의 진지한 물음 그 자체만으로도 저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기로 했습니다. 물음 하나하나를 자신에게 돌려 답을 구하다 보면 묻는 사람 자신이 어느덧 백팔고개를 넘어 부처님 도량에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수행을 쌓아 부처님 되십시오.

— 계한 스님이



불교 길라잡이

확실히 지음/값 18,000원

미라레백의 十萬頌

기르마 천천왕이 옮긴 경역본을
이정섭 풀어 옮김/값 18,000원

부처님의 아흔아홉 가지 말씀

이형기 지음/값 5,000원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

원외범 지음/값 6,000원

禪으로의 초대

스즈키 순류 지음/최세만 옮김
/값 5,000원

갖고 싶은 경전 시공 불교경전

시공 불교경전은 현대적인 해석과 감각있는 편집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형식의 경전입니다.

1 유아경

왕순홍 풀어 옮김 / 값 12,000원
한 편의 연극 같은 유아경의 삶법

2 법화경 1·2

이연숙 풀어 옮김 / 값 각권 12,000원
영원한 부처님의 가르침

시공 불교경전은 계속됩니다